

서양 근대사상에서 진보와 진화 개념의 교착과 분리*

황수영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논문분야 서양사상사

■ 주 제 어 진보, 진화, 신구논쟁, 질서, 완성가능성, 발달, 사회다원주의

■ 요약 문

진보와 진화의 개념은 각각 독자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일정한 시기에 교착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겪는다. 서양사상에서 진보와 진화의 개념을 비교하는 일은 각각 근대의 초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격변과 관련이 있다. 진보라는 말은 17세기에 탄생하였고 진화라는 말은 19세기 중후반, 즉 근대 후기에 진화론의 등장과 더불어 대중화된다. 이 두 개념은 각각 서양의 근대의 시작과 끝을 보여 준다. 양차 대전 후 서양 근대의 몰락이 논의되면서 근대 300년을 수놓은 진보의 이상은 가열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반성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진보 개념이 등장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 18세기 프랑스혁명이 계몽사상가인 콩도르세에서 완성된 혁명적 진보 개념의 구상, 19세기 전 반부에 과학적 진보의 이상을 구체화한 실증주의자 콩트의 3단계 진보이론, 19세기 중후반 스펜서의 진보적 진화론을 차례로 살펴보고 19세기 말 진보의 이상이 진화 개념으로부터 분리되어 축소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 접수일(2011.5.30), 심사 수정(2011.6.15), 게재확정일(2011.6.23)

1. 들어가는 말

진보와 진화라는 개념은 오늘날 비교적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사용된다. 진보라는 말은 보다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의미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능동적 행위를 권유하는 가치론적 개념이라는 일반적 이해가 있으며 정치나 문화의 영역에서 일정한 효력을 가지고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한편 진화는 생물학적 기원이 분명하여 가치론보다는 자연적 과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럼으로써 사용법도 제한될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일상생활에서도 생물학적 지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점차 용례를 더하고 있다. 일상어에서는 오히려 진보라는 말이 그것이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기피되거나 혹은 '발전'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다. 진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축소되고 진화로부터 그 의미가 분리된 것은 분명 오늘날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진화라는 말은 애초에 그보다 앞서 통용되던 진보 개념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서구의 사회진화론은 진보 개념과 더불어 그 의미효과를 극대화하였기 때문이다.

진보와 진화의 개념은 그 각각의 의미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일관된 정체성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일정 시기에 두 개념이 교착되거나 분리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서양사상에서 진보와 진화의 개념을 비교하는 일은 각각 근대의 초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격변과 관련이 있다. 물론 문화를 과학과 정치, 사상, 예술과 문학을 비롯한 인간 삶의 전분야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때 그러하다. 서양 근대의 시작을 17세기 정도로 잡는다면 실제로 오늘날 이해하는 진보라는 말의 의미가 탄생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며 한편 진화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 다시피 19세기 중후반, 즉 근대 후기에 진화론의 등장과 더불어 대중화된다. 즉 약간 과장하여 말하자면 진보와 진화는 각각 서양의 근대의 시작과 끝을 보여 주는 개념쌍이다. 물론 오늘날도 근대의 연속이라고 믿는 입장도 있기

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차 대전 후 서양 근대의 몰락 혹은 적어도 심대한 변형을 말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서구의 근대 300년을 수놓은 진보의 이상은 이때부터 가열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반성의 길로 접어들었다.

진보 개념은 주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여 극적인 전개를 보여 주지만 진화 개념은 영국과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외연의 확장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글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진보 개념이 등장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 18세기 프랑스혁명기 계몽사상가인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1794)에서 완성된 혁명적 진보 개념의 구상, 19세기 전반부에 과학적 진보의 이상을 구체화한 실증주의자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의 3단계 진보이론, 19세기 중후반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진보적 진화론을 차례로 살펴보고 19세기 말 진보의 이상이 진화 개념으로부터 분리되어 축소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2. 17세기 프랑스의 신구논쟁과 진보 개념

'진보'(progress영/progrès프/Fortschritt독)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progredior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말을 나타내는 라틴어는 무한히 더 나은 것을 향해간다는 현재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16세기에만 해도 이런 사고방식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문화를 재발견하고 인문주의라는 문화운동을 일으킨 르네상스인들은 중세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뽐냈지만 고대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외의 태도를 가졌고 그들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았다.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종말사관을 버리고 고대인들로부터 순환적 역사관을 빌려 왔다. 역사는 황금기로부터 타락한 후 다시금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이미 플라톤의 대화록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는 이 견해는 르네상스인들의 역사 해

석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황금기는 고대 그리스였고 중세는 이 고귀한 문화의 쇠퇴를 의미하며 르네상스는 고대의 재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시작, 진행, 쇠락”이라는 세 과정을 거치며 반복된다.¹⁾ 여기서 우리가 진행이라고 번역한 말은 중세 프랑스어 *progrez*라는 말로서 라틴어 *progredior*를 이어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작과 끝의 중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절정의 시기를 의미한다. 진보라는 말의 프랑스적 어원인 이 말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쇠퇴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진보와는 정반대의 과정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다.

『유럽 계몽주의 사전』에 따르면 진보라는 말이 순환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사용된 것은 영국 경험론의 시조 베이컨(Francis Bacon)의 책 『신적 지식과 인간적 지식의 숙달과 향상(advancement)에 관한 두 권의 책』(1605)에서이다.²⁾ 여기서 베이컨은 지식의 진보(progression)라는 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진보라는 말을 독자적으로 쓰기도 했다. 선형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지식은 경험에 의해 습득되고 노력에 의해 향상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컨의 책은 1625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진보라는 말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식의 진보라는 맥락에서 쓰였다. 그런데 진보라는 말이 독자적인 의미로 개진되면서 최초로 이론화된 것은 작가 페로(Charles Perrault)와 문예비평가 폰트넬(Bernard Fontenelle)에 의해서이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계는 전통과 근대성의 대립에서 유래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는데 이른바 ‘신구논쟁’이 그것이다. 고대 그리스 전통을 숭배하던 고대파에 반대하여 근대파의 주장인 페로는 「루이 대왕의 세기」라는 시에서 근대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루이 14세 시대의 변영 위에서 당대인의 문화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근대파는 이미 철학에서의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문학에서의 몰리에르(Molière), 라신(Jean Baptiste Racine), 코르네유(Pierre Corneille), 라퐁텐(Jean de La Fontaine) 등의 업적이 고대인들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실제로 고대파는 중세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한 르네상스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들의 순환사관에 의하면 자신들의 다음 세대, 즉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금 암흑기로 쇠락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적 성취를 바탕으로 계속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물음을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페로는 『고대인과 근대인의 비교론』에서 자신의 입장의 정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연은 그 생산에 있어서 불변적이고 언제나 동일하다... 우리가 학문과 예술의 비교고대인과 근대인의 비교를 할 때 그것은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순수한 자연적 재능, 즉 모든 시대의 탁월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학문과 예술이 지니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이다. 왜냐하면 학문과 예술은 단지 속고와 규칙들과 교훈들의 축적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이 축적된 것은 시간이 지남과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은혜로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위대한 군주가 나타나 그것들을 보호하고 장려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³⁾ 이 인용문에서 페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자연은 항구적이어서 고대와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자연적 재능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발휘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역사적, 문화적 성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1) Delon, M.(1997), *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Paris, P.U.F., p.1041.

2) Ibid.

3) Perrault, C.(1688), *Parallè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t. I, p.89~90. 엄밀히 말해 이 시대에 Sciences와 Arts는 오늘날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Sciences는 오늘날의 과학이라기 보다는 데카르트식으로 체계를 갖춘 엄밀한 지식(철학, 수학, 과학)을 지칭하는 것이고 Arts라는 용어는 자유교양(Arts libéraux)이라 불렀던 인문학(역사, 문학, 수사학) 전통에 회화, 음악, 조각 등 고유한 의미의 예술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오늘날의 예술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 인문학을 학문의 범주 안에 넣는다면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 전체를 볼 때 학문과 예술이라는 두 범주로 포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번역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황수영, 2010, 「철학과 인문학, 개념적 상호작용의 역사」, 『인문논총』 제63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참조).

의 우월성을 논할 경우 근대인들은 과거의 유산 위에 자신들의 업적을 첨가하여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페로에게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완벽에 가까워진다. 다만 그는 이 완벽에 가까운 시대가 자신이 살던 루이 14세의 시대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근대의 우월성을 자신한 페로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페로는 인류의 발전 양상을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 비교하는데, 성인이 되면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마찬가지로 후대인은 선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문화유산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조상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이라 해야 하고, 나이가 든 우리는 진정한 노인이 아닌가?”라고 되묻는다.⁴⁾ 그런데 페로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과정은 루이 14세 시대를 넘어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진보는 연속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 시대에서 멈추어야 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페로는 루이 14세의 시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이며 그러한 영광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⁵⁾

페로의 논리를 더 정연하게 가다듬어 무한한 진보의 관념을 제시한 이가 폰트넬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오류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시정되고 인간의 작품은 시간과 함께 양적으로 불어난다. 이러한 무한한 진보의 이념은 그러나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폰트넬은 일부분은 페로를 본받고 일부분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수세기 동안 불변

하지만 인간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다. 다만 시와 연극과 같은 문학의 영역은 이미 그 완성의 절정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보다도 더 우월한 영역에서 즉 과학과 철학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진보가 가능하다.

폰트넬에서 과학과 철학은 인간 정신이 이룩한 가장 탁월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진보는 인류의 진보와 등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류의 계속적인 진보를 말할 경우 르네상스인들의 순환사관과의 대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르네상스인들은 중세의 쇠락을 토대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순환사관의 적합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중세의 위치는 진보사관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물론 페로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는 여기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폰트넬은 여전히 유기체적 인간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중세는 인류의 삶에서 “하나의 질병,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이었다고 말한다.⁶⁾ 물론 유기체의 비유는 무한한 진보의 이념을 담지 못한다. 그것은 노화와 죽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대인과 근대인에 관한 여담』(168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사람 근대인이 결코 노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던 것들을 언제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장년에 이르러서도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유에서 나와 말하자면 인간은 결코 쇠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탁월한 정신들의 건전한 관점들이 서로를 잇따르며 계속해서 서로 위에 첨가될 것이다.”⁷⁾ 결국 폰트넬은 유기체의 비유를 벗어나 철학과 과학의 진보를 진보의 모범으로 삼음으로써 다가올 계몽의 세기를 준비하게 된다.

4) *Parallèle*, t. I, p.50. 사실 고대를 인류의 어린 시절로 묘사한 것은 베이컨과 파스칼이었다 [Bacon(1864), “Novum Organum,” 1, 84, *Works* vol. 1; Pascal(1976), *Préface pour le traité du vide,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p.534]. 페로는 고대와 근대에 대한 파스칼의 논지를 이어받으면서 이성과 신앙에 대한 그의 입장도 함께 빌려 온다. 그래서 전자의 대비에 대해서는 근대를 옹호하는 급진적 입장인 반면 후자의 대비에서는 교권과 왕권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이 문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Fricheau, Catherine(2008), “Des modernes aux encyclopédistes: le bon sens de l'idée de progrès?” *Dix-huitième siècle* n° 40, p.550).

5) 신구논쟁에서 페로의 논리가 자가당착에 이르는 과정을 논하는 논문으로는 「샤를 페로와 신구논쟁」(신정아, 2010, 『불어불문학연구』 83집)을 참조할 수 있다.

6) Fontenelle, B., *Digression sur les Anciens et les Modernes* (1688), *Oeuvres complètes*, t. II, Paris, Fayard, p.308.

7) Ibid.

3. 콩도르세—보편적 진보의 필연성

수 차례에 걸쳐 지속된 신구논쟁은 18세기 전반부까지 이어졌으며 대체로 근대파의 승리로 평가된다. 혹자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나타난 진보사상을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도 한다.⁸⁾ 물론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대부분이 단선적이고 무한한 진보를 믿었던 것은 아니다. 볼테르(Voltaire)는 18세기 문학의 쇠퇴에 대해 종종 한탄하곤 하였다. 달랑베르(Jean Le Rond d'Alembert)는 전시대에 비해 문학에 너무 많이 논쟁의 정신이 개입하고 있다고 불평했다.⁹⁾ 물론 문학의 진보는 앞서 보았듯이 언제나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루이 15세 하의 구체제에서 진보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볼테르는 『풍속론』에서 유럽 외 지역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암시하며 보편적 과정으로서의 진보에 의문을 표했다.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이 지적하듯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에 대한 의식이 짙고 있었다.¹⁰⁾ 진보만큼이나 쇠락도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디드로(Denis Diderot)는 1755년에 쓴 『백과전서』의 한 항목에서 여전히 순환사관을 암시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¹¹⁾ 여기에는 학문과 예술의 발달은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주장도 한몫을 했다.

이 시기에 학문과 기술의 발달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신구논쟁 자체도 학문과 예술(문예)을 분리하고 전자는 진보가 가능한 반면 후자는 상

대적인 것으로 결론지음으로써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중반이 되면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이 논의는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된다. 즉 학문과 기술에서 나타나는 진보가 이번에는 정치나 사회, 역사의 영역처럼 인간 삶의 바탕이 되는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의 진보에 대해 최초의 적극적인 주장을 개진한 이가 중 주의 경제학자 튀르고이다. 그는 1751년 출간한 『보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동물보다] 더 폭넓은 이성 그리고 더 능동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습득된 모든 관념들을 굳건히 소유하고 그것들을 통해 타인들과 소통하며 그것들을 언제나 증대하는 자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인간의 열정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사건들이 인간의 [위와 같은] 진보들에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인류의 역사’를 형성한다. 거기서 개개의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이 전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년시절을 가지며 진보들을 향해 열려 있다.”¹²⁾

보편적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사람은 튀르고의 친구이며 계몽주의의 막내라 불리는 콩도르세이다. 국교의 폐지를 주장하고 공교육 개혁안을 작성하는 등 사회변혁에서 자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지롱드파 혁명가 콩도르세는 1793년 자코뱅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수배중인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 일람표의 소묘』를 쓰는 데 바친다. 이 책은 인간의 보편적 진보에 관한 기존의 비판론을 일소하고 혁명의 당위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진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루소이다. 콩도르세의 진보 개념은 인간의 ‘완성가능성’(perfectibilité)이 무한하다는 신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완성가능성이라는 단어는 1755년 루소의 『인간 불평등기원론』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알

8) Fricheau, C., 앞의 논문, 559쪽. 여기서 저자는 페로에서 시작된 진보의 논의가 콩도르세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9) Discours préliminaires des éditeurs, *Encyclopédie*, p.XXXI. Fricheau,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552쪽.

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진보』, 황선에 옮김, 푸른 역사, 83~85쪽.

11) 디드로는 『백과전서』의 ‘백과전서’라는 항목에서 역사의 전환기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이 진보의 한계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순환사관에서 본 역사의 전환기를 의미한다. *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p.1043.

12) “Plan de deux Discours sur l’ Histoire Universelle,” *Oeuvres de Turgot*, vol. 1, Edition Schelle, p.276.

려져 있으며 그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된 용어이다.¹³⁾ 루소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개선가능성에서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징을 발견한다. 본능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동물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간직하는 데 반해 인간은 개인이건 종이건 자신의 능력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 바로 완성가능성이라는 속성이 인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역사의 퇴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⁴⁾ 이에 반하여 콩도르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인간 능력의 개선에는 어떤 종착지도 없으며, 인간의 완성가능성은 실로 무한하다. 이 완성가능성의 진보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힘들로부터 독립적이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 놓은 지구의 지속 기간 이외에는 어떤 종착점도 갖지 않는다. 이 진보의 속도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후퇴하지는 않는다. 지구가 우주의 체계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 체계의 법칙들이 지구에 어떤 격변을 일으키지 않는 한...”¹⁵⁾

물론 콩도르세의 사상에서 진보의 가능성은 선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수학자인 그는 확률의 법칙에서 그 근거를 이끌어 낸다. 당시의 모든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로크(John Locke)와 콩디아크(Étienne Bonnot de Condillac)의 경험주의 인식론을 받아들인 콩도르세는 인간의 사고가 복합관념들의 결합이며 복합관념은 단순관념들의 결합이고 단순관념은 경험의 기본 요소인 감각에 기원을 둔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관념

은 언어기호로 표현되고 지식의 진보는 그 기호들의 풍성한 결합으로 가능해진다.¹⁶⁾ 비록 관념들을 표현하는 기호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 기호들의 다양한 조합은 무한에 가까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논리학이나 수학은 기호들의 규칙을 연구하며 과학의 우월성은 기호와 관념이 엄밀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대수학을 기하학에 적용한 데카르트 이래로 수리과학의 진보는 거대한 지평을 열어 놓았으며 “그 방법은 그 자체로는 단지 양적 과학에 특수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원칙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관념들의 결합에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도구이다.”¹⁷⁾

그런데 우리의 관념들은 욕구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욕구는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더욱 다양화된다. 바로 이 사회의 영역에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콩도르세의 독창성이 있다. 기호의 결합과 확률 계산을 사회적 현상에도 적용할 때 거의 수학적인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지식의 진보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진보는 무엇에 소용이 되는가? 진보의 목적은 무엇인가? 콩도르세는 『소묘』의 마지막 장을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마감한다. 사회의 진보는 우선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다. 자유국가에서 사회가 이루어 놓은 지적, 물질적 자산은 기초교육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면서 인류의 운명을 개선시킬 수 있다. 국가들 간의 불평등, 한 국가 내에서 시민들 간의 불평등, 성차별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의 척결 그리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양면에서 인간 능력의 개선이 그것이다.¹⁹⁾ 이것은 콩도르세가 보는 진보의 목적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다.

13) 『유럽 계몽주의 사전』에 따르면 ‘완성가능성’의 개념을 구두로나마 처음 언급한 사람은 1751년의 튀르고이다(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p.1045). 사실 콩도르세는 『튀르고의 생애La vie de Turgot』(1786)라는 책에서 무한한 완성가능성의 개념을 튀르고가 최초로 제시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Association pour la diffusion de l'économie politique, Paris, 1997, p.23). 튀르고는 인간의 진보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종교적 관념인 ‘완성’을 ‘시간화’했다고 평가된다(『코젤릭의 개념사 사전 2—진보』, 59쪽).

14) Rousseau, J.-J., *Discours sur l'origine de l'inégalité de l'homme, Oeuvres complètes* III, Gallimard, p.142(『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경복·고봉만 옮김, 책세상, 62쪽).

15)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Paris, Vrin, 1970, p.40.

16) Ibid., pp.38~39.

17) Ibid., pp.170~172.

18) Ibid., pp.208~209.

19) Ibid., pp.211~214, 219.

4. 콩트—진보의 기초로서의 질서

콩도르세에서 진보가 추구하는 내용에는 희망과 예측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콩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헤겔(Hegel), 마르크스(Marx), 스펜서 등 19세기의 대부분의 역사철학자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들은 절대왕정의 몰락과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민족국가의 부상과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근대 유럽의 일반적 특징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격변에는 일견 시민들의 자유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필연적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혁명의 새벽에 죽음을 맞이한 콩도르세는 자유와 평등의 확대와 인간 능력의 개선이라는 희망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어떻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학에 기초한 추상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혁명과 공포정치, 쿠데타와 전쟁, 왕정복고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혁명 등 숨가쁜 격변을 경험한 19세기의 프랑스 사상가들은 사회 변화의 공고한 메커니즘 혹은 법칙을 제시하는 일을 긴급한 의무로 느낀 듯하다.

이 시기에 보수주의자와 급진주의자를 막론하고 모든 이를 지배한 감정은 일종의 위기의식이었다. 구질서는 사라지고 새질서는 도래하지 않은 혼돈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사회질서의 확립이었다. 그리고 질서는 더 이상 왕권이나 교권에 의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에 맡길 수도 없었다.

프랑스에서 계몽주의의 후예들은 공통적으로 과학과 경험적 사실에 기반을 두는 정치사회적 질서의 재조직을 꿈꾸었다. 콩트는 혁명적 사고가 구질서를 파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사회적 결집을 외면하고 있어서 무질서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실증철학을 “가장 문명화된 국가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끝내 줄 사회적 재조직의

단 하나의 견고한 기초”로 제시했다.²⁰⁾ 콩트에게 진정한 진보는 질서를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사실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종종 구질서를 옹호하는 왕정복고주의자의 주장으로 간주되었고 진보는 계몽과 혁명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콩트의 진보 개념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들과의 투쟁에서 비롯하며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이 사회 발달의 삼 단계 법칙이다.

잘 알려진 콩트의 삼 단계 법칙의 특징은 인류의 역사를 지적인 발달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인류는 신학적 사고, 형이상학적 사고, 실증적 사고라는 세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다. 물론 각각의 단계에는 상응하는 정치사회적 형태가 존재한다. 콩트는 생시몽(Saint-Simon)과 함께 콩도르세의 『소묘』를 읽으면서 그 안에 모호하게 나타나 있던 역사 발달의 단계들을 역동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였다. 콩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를 신학적이고 군사적인 사회에서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인류의 보편적 과정으로 일반화한다.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사회는 역사의 최종 단계이며 거기서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을 도구로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제기되고 해결된다. 콩트에게 사회는 헤겔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²¹⁾ 콩트는 진보된 사회의 모범으로서 일종의 기술관료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²²⁾ 그것은 능력 있는 엘리트들에 의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회이다. 콩도르세와 비교할 때 진보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삼 단계 법칙이 필연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자연적 질서가 점차로 실현되는 과정이

20)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Première et deuxième leçon), Hatier, Paris, 1982, p.91.

21) 마슈레는 이 지점에서 콩트와 헤겔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콩트의 <소묘집 Opuscule>보다 1년 앞서 출간된 헤겔의 <법철학 원리들>(1821)에 이와 유사한 생각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콩트가 헤겔의 저서를 읽지는 않았다. Macherey, Pierre, *Comte La philosophie et les sciences*, P.U.F., 1989, p.66.

22) 레이몽 아롱은 콩트의 산업사회이론이 오늘날 ‘경영주의’ 혹은 ‘실력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사회사상의 흐름』, 기린원, 82쪽.

라는 데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실증적 단계에서 완성에 이른다. 즉 콩트에 “진보(le progrès)는 단지 질서의 전개(le développement)”이다.²³⁾

진보와 질서의 결합은 몇 가지 의문을 남겨 놓는다. 우선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자연적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것은 왜 단번에 실현되지 않고 시간 속에서 서서히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전개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콩트는 진보를 질서의 전개라고 하는 동시에 “최종적 조화이자 총체적 전개(évolution)”라고 말하기도 한다.²⁴⁾ 전개라는 말로 번역한 용어에 대해서 앞에서는 développement이 사용되고 뒤에서는 évolution이 사용되었다. 콩트의 저작들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이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오늘날 발전과 진화라고 번역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초기 작품인 『실증철학강의』(1830~1842)에서는 ‘développement’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후기 작품인 『실증정치학체계』(1851~1854)에서는 ‘évolution’이 그것을 거의 대체하고 있다. 이 두 용어는 생물학, 특히 발생학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배아의 발생이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후성설과 배아 안에 생물의 모든 형태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전성설의 대립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학적 입장에 기반을 둔 후자에게 스위스의 생물학자 할러(A. Von Haller)는 1744년에 ‘진화들(évolutions)의 이론’이라는 역설적인 명칭을 붙였다. 물론 당시에 évolution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진화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미리 계획된 것이 시간 속에서 전개된다는 의미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1762년 스위스의 생물학자 보네(Charles Bonnet)는 이 이론을 개체만이 아니라 종의 형성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경우 évolution의 개념은 오늘날의 의미에서 진화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체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계획의 실현 혹은 전개라는 뉘앙스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²⁵⁾ 콩트 역시 자연적 질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성설과 비샤(X. Bichat)의 생리학에 호소한다.²⁶⁾ 그것들이 각기 발전과 진화라는 오늘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스펜서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므로 콩트에서 위 두 용어는 질서와 진보를 매개하는 개념으로서 미리 존재하는 질서의 상태가 시간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콩트는 『실증철학강의』에서 ‘완성함(perfectionnement)’이라는 개념과 자신의 ‘전개(développement) 개념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완성함이라는 단어는 18세기 후반부터 많이 사용되던 동사형 명사이며 신학적 의미의 ‘완성(perfection)’을 동사화한 단어 ‘완성하다(perfectionner)’에서 유래한다. 이 과정에서 신학적 의미는 퇴색하고 일반적 의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혹은 개선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완성함이라는 명사가 진보라는 말의 함축과 교차된 것은 물론이고 루소의 완성가능성 개념도 거기서 유래한다.²⁷⁾ 콩트에 의하면 “인류가 문명의 점진적 흐름에 따라 부단히 전개되어 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전개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amélioration)이나 고유한 의미에서 진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주저없이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면서 ‘완성함’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 악순환의 우려가 있는 반면 ‘전개’라는 말은 “우리의 기본적 능력들이 단순히 자연발생적 도약으로부터 적절한 문화에 의해 점차 촉진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게다가 “인류가 실제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perfectionnement)’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규정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학적 목적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²⁸⁾ 그러므로 전개는 그 자체로서(분석적 필연성의 의미에서) 진보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되 역사 과정의 삼 단계 법칙에서

23) *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 III, p.72.

24) *Ibid.*, II, p.3.

25) *Dictionnaire d'histoire et philosophie des sciences*, pp.354~355.

26) *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 II, p.4.

27)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진보』, 59~60쪽.

28)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48e L., IV, pp.198~203(강조는 필자).

볼 때(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의미에서) 진보를 향해 간다.

콩트에서는 인류의 자연적 본성의 전개가 역사를 구성한다. 사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지적했듯이 콩트에서는 왜 역사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적 본성이 일단 가정되면 그것이 단번에 성숙한 형태로 펼쳐진다는 것도 상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레이몽 아롱에 의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역사의 시초에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철학 즉 신학이 필요했고 실증적 단계는 외적 세계의 관찰을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증주의는 자연발생적인 철학이 아니라 최종적인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²⁹⁾ 물론 우리는 여기서 콩트가 사회현상의 모델을 생물학(발생학)에서 취한 것을 근거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생물 발생학은(전성설에서 주장하듯이) 비록 생명체의 발달과 성장의 전체 계획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발생은 미소한 세포의 수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 역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결정론으로 될 수 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콩트가 의도한 것이다. 콩트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 엄밀한 과학이 되기를 원했는데 생물학 모델이 거기에 근거를 제시해 준다. 콩트에서 질서는 진보를 이끌고 진보는 질서를 전개시킨다. 콩트가 진보를 “총체적 전개이자 최종적 조화”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연적 본성의 완벽한 실현을 의미하며 어떤 인위적 요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함축이 있다. 그래서 그는 루소의 ‘무한한 완성가능성’의 개념을 비판한다. 거기에는 인간의 다양한 변화가능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⁰⁾ 그런 이유로 또한 그는 18세기 사상가들의 사회계약설을 거부하고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자연법 사상을 주장한 몽테스키외(Montesquieu)를 자신의 선구자로 여겼다. 콩트는 물리학에서 정역학과 동역학의 개념을

빌려 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다루는 학문은 ‘사회정학’(La statique sociale), 인류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학문을 ‘사회동학’(La dynamique sociale)으로 제시한다. 사회학은 이처럼 엄밀한 과학의 이념 위에 성립한다. 그러나 역사의 전개를 현대의 실증주의에서 완성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콩트의 진보이론은 또한 일종의 완성을 가정하는 신학적 이념에 가까워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³¹⁾

5. 스펜서—진화와 진보의 교착과 분리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에서 진보의 개념은 진화라는 새로운 개념과 중첩되면서 외연을 넓히게 된다. 비록 *évolution*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움의 출현, 실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서이다. 스펜서는 단순히 어휘의 의미변화를 유도한 것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진화론 철학을 전개하고 콩트에 버금가는 학문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19세기 서양사상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진화 개념은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기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비록 1809년 출간된 라마르크(Jean Baptiste Lamarck)의 『동물철학』의 영향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기서도 종의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진화론보다는 ‘변이설’(transformisme)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진화라는 말은 앞에서 잠시 본 바와 같이 생물발생학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배아의 발생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생물학자들은 전성설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유기체의 기관들은 미

29) 레이몽 아롱, 앞의 책, 94쪽.

30)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48e L., IV, p.202.

31) 레이몽 아롱, 앞의 책, 91~92쪽. 역사의 완성을 가정하는 생각은 페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19세기의 콩트와 헤겔, 마르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리 결정된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후성설(épigenèse)이 점차 지배하게 된다. 발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폰 바에르(K. E. Von Baer)는 『동물발생사에 관하여 Ueber Entwicklungsgechichte der Tiere』(1828)에서 발생의 과정은 동질적인(homogène) 전체가 이질적인(hétérogène) 부분들로 분화(différenciation)되는 과정이며 또한 종의 일반적인 성질들이 특수한 성질들로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즉 발생의 과정은 기존재하는 본질적 형상의 전개가 아니라 각 부분이 분화되는 가운데 비로소 그 형태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 이론은 스펜서의 진화론의 핵심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미리 존재하는 원리의 전개과정을 가리키던 Entwicklung(독)/développement(프)/development(영)라는 용어에서 그 전성설적인 의미는 폐기되고 후성설의 입장에서 단지 발생과정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발달생리학과 같은 예에서 나타나는 ‘발달’이라는 번역어는 적합하다.

스펜서는 이와 같은 발생학 원리를 종들의 변화에도 적용시킨다. 초기에 스펜서는 발달(development)과 진화(evolution)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두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다. 발달(발전)이라는 말은 배아의 후성적 전개 이미지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더 나은 것을 향한 인간 사회의 변화에도 이러한 뉘앙스와 더불어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생명의 진화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진화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의 변화에 기인하는 생명의 진화에 사용되지만 진화론이 인간과 사회, 우주의 과정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장된다. 스펜서의 진화론에 의하면 생물종들의 시간적 변화에서도 미리 결정된 것은 없고 단순하고 동질적인 형태들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에 의해 복잡하고 이질적인 형태들로 점차 이행하면서 새로운 형태들이 출현한다. ‘적자생존’이라는 잘 알려진 용어는 스펜서가 발명하고 다윈에 의해 채용된

것이다. 스펜서는 진화의 의미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화는 일상적 의미에서는 펼쳐지는 것이고 열리는 것이고, 확산되는 것이며 밖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기서 이해되는 바로는 진화는 … 복합된 물질이 확산된(diffus) 상태에서 더욱 집중된(concentré)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단어인 퇴화(involution)가 변화의 본성은 더 잘 표현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다루게 될 [진화의] 이차적인 성질들은 더 잘 묘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모순된 의미들로부터 유래할 그러한 혼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단어를 분해(dissolution)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³³⁾ 분해와 반대되는 진화는 구성적인 원리로서 “연속적인 분화(différenciation)와 통합(intégration)을 거치며 비결정적이고 비정합적인(incohérente) 동질성에서 결정되고 정합적인 이질성을 향해 가는 변화”이다.³⁴⁾

이렇게 이해된 진화는 또한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스펜서는 콩트의 영향으로 사회발달 이론을 구상하는데 콩트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을 모델로 하지만 전성설이 아니라 후성설에 기초한 진화론을 모델로 하고 있는 점에서 콩트와는 매우 다른 사회발달론을 제시한다. 스펜서는 사회의 진화 역시 분화와 통합의 원리에 의해 설명한다. 우선 원시사회는 일의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질적인 사회이며 사용하는 도구들도 초보적이며 작고 단순한 것들이다. 좀 더 진화한 사회에서 사회조직은 더 커지면서 동시에 복잡화되고 분화되는 가운데 점차 일의 분업이 생겨난다. 사용하는 도구들도 더 커지고 복잡하며 더 효율적으로 된다. 법률이 제정되고 관습과 제례 의식도 생겨난다. 한편 사회는 유기체와 같으며 거기에는 외부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위해 존재하는 외부기관(군대)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을 돌보는 내부기관이 있다. 인류의 진화는 전자에 몰두하는 군사사회에서 후자

32) *Dictionnaire de l'histoire et philosophie des sciences*, p.356.

33) *Premiers principes* (1862), ch. XII, § 97, trad. E. Cazalles, Paris, Germer-Baillièrre, 1871 / Paris, Alcan, 1935.

34) *Ibid.*, Paris, Alcan, 1935, p.345.

를 좀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사회로 이행한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사회의 문제는 경쟁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문명화 과정과 일치한다.³⁵⁾

스펜서의 진보낙관론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중산층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정치적 안정과 청교도적인 근검절약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가 우월한 문명사회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과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는 부의 증가에 기초한 진보의 이념을 제시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공고화하였다.³⁶⁾ 스펜서의 진화론은 이러한 영국적 진보의 이념을 자연세계로까지 확장한 것이었다. 뉴턴 이래 영국 지식인들이 신봉하던 자연종교의 이념은 이 시기에 특히 진화에 기초한 진보 이념과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 즉 자연과 신이 동격인 사고방식 속에서 경제적 부를 이룬 중산층은 자연적으로 선택된 계급이라는 생각은 신학적 사고의 연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스펜서는 상승하는 산업부르주아지와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이념에 적합한 가치체계를 제공하였다.³⁷⁾

스펜서의 초기 작품인 『사회정학 Social Statics』(1850)은 다윈의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1859) 이전에 이미 과학에 기반을 둔 통일된 세계상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심리학 원리』(1855) 그리고 『중합철학체계』라는 커다란 제목 아래 『제1철학』을 비롯한 『생물학 원리』, 『사회학 원리』, 『도덕의 원리』

등이 40여 년간 연속적으로 출간되었고 이 모든 분야는 진화라는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물론 이 시기의 스펜서는 다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때부터 그는 다윈의 ‘자연선택’, ‘생존투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과 사회의 점진적인 진화와 진보를 설명하고 있다.³⁸⁾ 사실 초기의 스펜서는 칼라일(Thomas Carlyle)과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등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에 몰두했었고 그의 사회유기체설은 여기에 기원을 갖는다. 스펜서 사상에서 종종 모순된 것으로 지적되는 사회유기체설과 개인주의 간의 긴장은 여기서 유래한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낭만주의적 경향은 점차 기계론적 관점에 압도되고 사회유기체설보다는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가 강조된다.

사회적 진보가 취하는 형태를 구상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는 콩트의 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콩트의 『실증철학강의』는 1853년에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실증주의의 이념은 한때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는 조화될 수 없었다. 혁명 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 질서를 강조하고 지적 엘리트들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위계적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 콩트의 입장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콩트는 그런 경향이 심지어 지적 무정부주의를 야기할 것을 두려워했다.³⁹⁾ 사실 당시의 영국 사회는 입헌군주제를 옹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콩도르세의 진보의 이상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에게는 만인의 평등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35) *Principe de sociologie*, Paris, Alcan, 3e éd., 1988, pp.316~395.

36) 위 저자들의 부의 증가와 관련된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Binoche, B.(dirigé par)(2005), *Les équivoques de la civilisation*, Champ Vallon, 2005, p.197.

37) Becquemont, D.(1996), “Herbert Spencer: Progrès et décadence,” *Mil neuf cent*, N° 14, p.71. 베크몽에 의하면 스펜서 시대의 영국의 급진적 지식인들은 아르메니우스파 칼뱅주의에서 유래하는 자연종교의 신봉자들이었고, 이들은 자연 자체를 신의 선물이자 구원의 표지로 보았으며 진보의 이상은 다가올 지상천국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앞의 논문, 70쪽.

38) 생존투쟁(Struggle for existence)은 맬더스의 인구론에서 등장한 말을 다윈이 자신의 이론에 채용한 것이다.

39) 레이몽 아롱은 콩트의 체계를 플라톤의 그것에 비교하기도 한다. 앞의 책, 같은 쪽. 한편 콩트와 스펜서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한 비교 연구는 베크몽의 다음 논문을 참조. “Positivism et utilitarisme : regards croisés, Comte, Spencer, Huxley,”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Humaines*, 2003/1-no 8, pp.57~72.

흥미롭게도 진화에 기초를 둔 스펜서의 진보의 이상은 영국 사회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한다. 19세기 초부터 국제사회의 선두주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영국은 대략 1875년 이후부터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이 부상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 시기에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과 산업혁명을 이룬 독일과 프랑스, 미국은 경제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식민지 전쟁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다. 즉 영국은 국가 간의 경쟁 속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와 진화론 사상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간의 영국의 성공이 '적자생존'에 의해 정당화되었다면 이제 '생존투쟁'과 '부적응자의 도태'라는 사상이 영국 국민 자신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문제인 빈곤층 노동자 문제, 하층계급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진화론은 생물학 이론으로서 그리고 사회다윈주의로 확대된 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영국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진보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문화 전반에 '데카당스'의 징조가 나타난다.⁴⁰⁾

진화가 진보를 필연적으로 함축하는가 하는 문제의 이론적 측면은 우선 헉슬리(Thomas Huxley)의 비판에서 나타난다. 진화론의 신봉자로서 스펜서와 다윈의 이론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그이지만 진화의 이념을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판하였다. 『진화와 윤리』(1893)에서 그는 윤리적 진보와 우주적 진보를 나누고 전자를 인간 문명의 산물로 보는 반면 후자는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회적 진보란 우주적 과정(진화)의 매 단계를 점검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윤리적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윤리적 진보의 목적은 주어진 모든 조건과 관련하여 가장 잘 적응한 자들에게나 가능할 수 있는 생존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들의 생존이다”와 같이 말하고

40) Becquemont, D.(1996), “Herbert Spencer : progrès et décadence,” p.74.

있다.⁴¹⁾ 그러나 진화로부터 진보 개념이 결정적으로 분리된 계기는 진화론 자체의 전개에서 유래한다. 독일의 진화론자 바이스만(August Weismann)은 적어도 생물학의 영역에서 진화가 진보가 아니라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는 생식세포와 체세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부모의 형질은 생식세포에 의해서만 후손에 유전된다는 것을 확립하였다. 일종의 유전결정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 이론에서 개체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 부가할 수 있는 것, 즉 획득형질의 유전은 완전히 부정된다. 스펜서의 이론은 다윈 이전에 획득형질의 유전을 주장하는 라마르크의 사고로부터 진보의 원칙을 구상하였기 때문에 바이스만의 발견은 그의 입장을 전복시킬 수도 있는 무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 이때부터 라마르크 이론에 기초한 모든 사회 이론은 급속도로 하강의 길을 가게 된다.

6. 결론을 대신하여—사회다윈주의의 팽창과 몰락

19세기 후반 이후 생물학을 제외한 인간과 사회의 영역에서 진화의 개념은 사회다윈주의의 이론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⁴²⁾ 사회다윈주의는 흔히 스펜서가 다윈의 이론을 자신의 사회이론에 도입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의 이론은 사회라마르크주의라고 하는 편이 더 옳다는 지적이 있다.⁴³⁾ 비록 그가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

41) Huxley, T.(1893), *Evolution and Eth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139.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 Patterson, W.(2005), “The Greatest Good for the Most Fit?”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 36, No. 1, Spring, p.73.

42) 이런 의미의 사회이론은 우리에게는 보통 사회진화론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서양에서는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로 통칭되며 사회진화론(social evolutionism)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회진화론이라는 말이 사용될 경우는 사회변화(social change)의 이론이라는 의미로서 콩트의 이론도 여기에 해당된다.

43) 박희주, 2002, 「현대 생물학의 사회적 지평」, 『과학과 철학 제13집—생물학의 시대』, 통나무, 77~78쪽.

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공고히 하기는 했지만 라마르크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본성보다는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였으므로 사회의 진보는 교육과 학습을 통한 개선 그리고 그것의 유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스펜서는 바이스만의 이론이 나온 후에도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무튼 사회다윈주의라는 용어는 스펜서 자신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1879년 독일의 오스카 슈미트(Oscar Schmidt)의 「대중의 과학 Popular Science」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등장하며 다음 해인 1880년 프랑스의 에밀 고티에(Emile Gautier)의 책 『사회다윈주의 Le darwinisme social』에서 비중 있게 거론된다. 그러나 고티에는 사회주의자 크로포트킨(Kropotkin)을 예고라도 하듯 다윈의 이론을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것은 야만적 경쟁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협동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⁴⁴⁾ 실제로 다윈 자신도 경쟁만이 아니라 자연계의 상호 협동을 강조했으며 20세기 생태학 이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진화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한 이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다윈주의라는 명칭 아래 보통 이해되고 있는 중심 내용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존투쟁’, ‘자연선택’, ‘적자생존’이라는 개념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윈과의 관련성은 명백하고 스펜서 역시 비록 라마르크에 더 친화성이 있다 해도 위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므로 일반의 이해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의(~ism)가 그러하듯 필요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담아 조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세기 후반에 특징적인 사회다윈주의의 면모는 투쟁의 수준이 더 이상한 사회 내의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으로 이전된 데서 나타난다. 민족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경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였고 이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제국,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탄생으로 가속화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 각각은 국제적 패권을 위해 자국 내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동과 단결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다윈주의는 특수하게 변질된 형태를 띠게 된다. 스펜서식의 국가 불간섭주의는 신헤겔주의 국가간섭주의로 바 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영국에서조차 브래들리(Bradley)와 같은 신헤겔주의자들이 득세하여 스펜서의 개인주의를 극렬히 비판하기에 이른다.⁴⁵⁾ 사실 스펜서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는 진보에 대한 낙관에 근거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신헤겔주의적 국가유기체설은 경쟁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진보는 더 이상 현실을 이끄는 기대지평이 아니라 방어해야 할 무엇이었고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된 것이다.

영국에서 골턴(F. Galton)의 우생학의 출현은 이런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83년 골턴은 영국 사회의 쇠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유전학적 개량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바이스만의 이론은 교육에 의한 후천적 개선이 사회의 진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도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에 의하면 “문명화된 인간의 뿌리는 그 선천적 불완전함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허약하다.” 게다가 인간 사회에서는 부적응자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으며 “우월한 인간들”이 자식을 적게 낳은 반면 “열등한 인간들”은 출산율이 더 높다.⁴⁶⁾ 따라서 골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수한 남녀의 후손을 증가시키며 부적응자들은 불임 등의 방법으로 후손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자연선택이 아니라 인위선택을 일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45) Becquemont, D., “Herbert Spencer : Progrès et décadence,” p.75.

46) Galton, F.(1883),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Dent, 1907, p.16. 타르키에프의 논문에서 재인용, Targuieff, P.-A.(2007), “Au coeur du raisonnement galtonien : le paradoxe de la politique malthusienne et sa solution eugéniste,” *Raisons politiques* 2-n° 26, p.186.

44) Hodgson, G.(2004), “Social Darwinism in Anglophone Academic Journals : A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the Term,”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Vol. 17 No. 4 December, p.433.

지하다시피 이런 인위적 선택과 제거를 수반하는 사회다윈주의는 강력한 국가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1933년부터 나치의 인종프로그램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후로 사회다윈주의 입장을 스스로 주장하는 학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레이몽 아롱, 1988, 『사회사상의 흐름』, 기린원.

장 자크 루소, 2003,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경복·고봉만 옮김, 책세상.

라인하르트 코젤렉 외,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진보』, 황선애 옮김, 푸른 역사.

Binoche, B.(dirigé par) (2005), *Les équivoques de la civilisation*, Champ Vallon.

Comte, A.(1830-42),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I-VI (Première et deuxième leçon, Hatier, Paris, 1982).

_____ (1851-54) *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 I-IV (“Librairie positiviste” Georges Crès & Cie, 1912).

Condorcet, N.(1804),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Paris, Vrin, 1970.

_____ (1786) *La vie de Turgot*, Association pour la diffusion de l'économie politique, Paris, 1997.

Delon, M.(1997), *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P.U.F.

Galton, F.(1883),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Dent, 1907.

Huxley T.(1893), *Evolution and Eth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Lecourt, D.(1999), *Dictionnaire d'histoire et philosophie des sciences*, P.U.F.

Macherey, Pierre(1989), *Comte La philosophie et les sciences*, P.U.F.

Pascal, B.(1976), *Préface pour le traité du vide,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Perrault C.(1688), *Parallè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4 volumes, Paris, Chez Jean-Baptiste Coignard.

Rousseau, J.-J.(1755), *Discours sur l'origine de l'inégalité de l'homme, Oeuvres complètes* III, Gallimard.

Spencer, H.(1862), *First Principles (Premiers principes, trad., Cazalles, E., Paris, Germer-Baillièrre, 1871 / Paris, Alcan, 1935).*

2. 논문

박희주, 2002, 「현대 생물학의 사회적 지평」, 『과학과 철학 제13집—생물학의 시대』, 통나무.

신정아, 2010, 「샤를 페로와 친구논쟁」, 『불어불문학연구』 83집, 가을.

황수영, 2010, 「철학과 인문학, 개념적 상호작용의 역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제63집, 6월.

Becquemont, D.(1996), "Herbert Spencer : Progrès et décadence," *Mil neuf cent*, N° 14.

_____(2003) "Positivisme et utilitarisme : regards croisés, Comte, Spencer, Huxley,"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Humaines*, 1-no 8.

Hodgson, G.(2004), "Social Darwinism in Anglophone Academic Journals : A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the Term,"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Vol. 17 No. 4.

Patterson, W.(2005), "The Greatest Good for the Most Fit?,"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 36, No 1, Spring.

Targuieff, P.-A.(2007), "Au coeur du raisonnement galtonien : le paradoxe de la politique malthusienne et sa solution eugéniste," *Raisons politiques*, 2-n° 26.

Abstract

The Entanglement and Separation of the Concepts of Progress and Evolution in Western Thought

Suyoung Hwang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y Word** : Progress, Evolution, Quarrel of the Ancients and the Moderns, Order, perfectibility, Development, Social Darwinism

The concepts of progress and evolution had developed apart from each other, yet they experienced the processes of entanglement and separation of its own kind. In Western thought, their comparison becomes involved in the cultural upheavals occurring in the early and late modern times respectively. The term, progress, showed itself in the 17th century, while the term of evolution gained currency with the appearance of the theory of evolution in the mid and late 19th century, that is, the late modern times. These terms witness the beginning and end of Western modernity respectively. With the arguments over the collapse of Western modernity after the two World Wars, the ideal of progress, which had penetrated modern three hundred years or so, became a target of severe criticism, and came to go through self-reflection. In this essay, we examine the processes of the appearance and semantic expansion of the idea of progress in

France of the 17th century; scrutinize, in succession, the project of revolutionary progress established by Condorcet, a philosophe of the revolutionary period of France, the theory about the three stages of progress by Comte, a positivist, which embodied the scientific ideal of progres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theory of progressive evolution by Spencer in the mid and late 19th century; finally, trace the processes where the ideal of progress had itself separated from the concept of evolu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reducing its own implication.